

# \*\*\*\* 아라타 이소자키의 공간에 나타난 디자인 특성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Design Characteristics in the space of Arata Isozaki

류혜지\* / Ryu, Hye-Ji  
서승하\*\* / Suh, Seong-Ha  
김혜자\*\*\* / Kim, Hye-Ja

### Abstract

Arata Isozaki is one of the Japan's most important contemporary architects with an international reputation and has designed notable buildings in Asia, Europe, and the United States.

Arata Isozaki is not an architect simply explained by a single ism or style, he has dedicated himself to express all diversities implied in different periods and styles. With an avant-garde spirit and enthusiastic creativity, he has devoted all his efforts to bring these diversities and complexities into his own architectural works.

The study was aimed to identify the key characteristics implied in his overall design concept. Through the analysis of his works, the key features underlined in his works were characterized by five key words, which are tradition, eclectic, metaphor, metabolism and proportion. These five characteristics have been well presented in his works individually and sometimes as a whole. His unique combination among these key design concepts has been impressed by many other architects in worldwide.

키워드 : 아라타 이소자키, 일본, 디자인 특성, 다양성, 아방가르드

Keywords : Arata Isozaki, Japan, Design characteristics, Diversity, Avant-garde

## 1. 서론

###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모더니즘 이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건축 공간에 나타난 형태적 특징과 그 내용들은 시대적 상황에 따른 문화의 형성과 환경의 변화에 따라 다양하게 표출되고 있다. 특히 모던 건축 이후 두드러진 형태적 다양성과 장르의 모호성은 현대 건축 공간의 복잡성을 대변한다고 볼 수 있다.

아라타 이소자키(Arata Isozaki)는 이러한 복잡한 양상 속에 건축적 주제를 전통과 현대라는 의미로 재해석한 자신만의 건축적 담론을 가진 작가이다. 또한 그는 일본의 현대 건축 형성에 많은 영향을 미쳤던 모더니즘 건축과 포스트모더니즘 건축의 시대적 흐름 속에서, 모더니즘의 자기 폐쇄적인 한계를 극복하고 일본의 전통적 공간 개념을 토대로 두 흐름의 경계를 넘나들며, 보다 열린 사유의 특징인 아방가르드적 사고를 바탕

으로 자기 나름대로의 디자인 표현방법을 구사하고 있다. 그의 작품은 화려하고도 강렬하면서 놀라운 기하학적 형태와 첨단 기술의 건축 형태로 나타나며, 때로는 깊은 명상의 메시지를 준다.

1960년대부터 현재까지 거의 50년간 활발한 건축 활동을 보이고 있는 아라타 이소자키의 건축 공간은, 하나의 이즘이나 양식으로 정의되는 것이 아닌 각 시대와 각각의 양식을 아우르는 다양성과 복합적인 특성을 보인다.

이러한 의미로 살펴볼 때, 그는 현대 건축의 흐름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음이 분명하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그의 건축 공간에 대한 연구 및 문헌을 찾아보기가 힘든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아라타 이소자키의 작품을 분석하여 그의 건축 공간에 나타난 디자인 특성을 파악해 봄으로써, 아라타 이소자키의 디자인 개념 및 건축 철학 연구에 대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 1.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아라타 이소자키의 건축 세계는 무엇보다도 탈장르화, 다양화라는 특징이 두드러진다. 특히 각 시대별 양식과 흐름의 복

\* 정회원, 연세대학교 주거환경학과 박사과정

\*\* 이사, 안산공과대학 실내디자인과 조교수

\*\*\* 정회원, 안산공과대학 실내디자인과 조교수

\*\*\*\* 본 논문은 2004년 안산공과대학 학술연구비 지원으로 쓰여 졌음

합성, 절충성은 그의 대표적 건축 철학이라고 할 수 있다. 지금까지 다양한 종류의 건축을 통해 아라타 이소자키는 아방가르드적 사고를 가지고, 일본 전통 건축의 특징을 비례와 은유로 내포한 다음, 지역적 특징과 절충시키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그의 작품 세계에 영향을 주었던 일본 현대 건축계의 동향과 아라타 이소자키의 디자인 언어 생성 배경이 된 인물들의 특징에 대해 살펴보고, 그의 작품들을 분석하여 작품 전반에 흐르고 있는 사상과 디자인 특성 등을 살펴보고자 한다.

본 연구는 기존 연구와 문헌을 참고하여, 국내외에서 발간된 아라타 이소자키의 작품집과 저서, 인터뷰 기사, 인터넷 자료 등을 이용한 내용분석을 한다. 그의 작품은 10년 단위로 구분할 수 있는데, 그가 처음 건축 활동을 시작했던 1960년대를 제1기로 볼 수 있고, 1970년대를 제2기, 1980년대를 제3기, 1990년대 이후를 제4기라고 볼 수 있다. 분석 대상으로는 제1기 1960년대부터 최근까지의 작품 모두를 선정하고, 일본뿐만 아니라 미국과 유럽 등에서 작업한 작품들도 함께 분석하도록 한다.

## 2. 일본 건축계의 동향

### 2.1. 서구 근대건축의 도입

1986년 명치유신 이후 문호를 개방하면서 서구건축이 도입되기 시작한 일본은 정부주도로 관청건물, 학교, 기차역사 등을 맡은 외국 건축가들에게 의뢰하였다. 이때 국적에 따라 다양한 양식이 일본에 소개되었으나, 대부분은 영국의 고딕이나 르네상스 양식이었고 사용된 재료는 벽돌과 돌이었다.<sup>1)</sup> 그러나 19세기 말경에 훈련된 근대 일본 건축의 제1세대들은 유럽과 미국 건축의 새로운 발전과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는 속에서 주도적인 위치를 차지하게 되며, 이들을 통해 서구건축의 동향이 신속하게 도입되었다.<sup>2)</sup> 또한 20세기 초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 안토닌 레이몬드, 르 꼬르뷔지에와 같은 서구의 주요한 건축가들이 일본에 단기간 혹은 장기간 체류하면서 일본의 건축 역사에 현저한 영향을 남겼다.<sup>3)</sup>

### 2.2. 1960년대 이후 일본 현대건축의 흐름

서구건축의 영향을 흡수했던 근대 건축기를 보낸 일본 건축가들이 기존의 물리적 필연성에 의한 건축구성의 원동력이 쇠퇴하면서 새로운 형태에 의한 사회적인 효과, 사회적 통념에

의한 건축스타일과 양식을 요구하게 되어 1960년대 일본 현대 건축이 시작되었다. 즉 기능주의 건축의 발전적 극복을 표방하면서 인간의 생활을 기반으로 건축이 거듭 나아가 함을 주장한 메타볼리즘 운동이 시작된 것이다. 메타볼리즘(Metabolism:신진대사)은 생물학 용어를 건축적으로 적용함에 있어 성장, 변화, 대사, 과정, 유동성과 같은 시간에 관계하는 모든 개념을 건축에 도입한 것으로서, 일본 건축에서의 구성적, 환경적 전통에 관한 토속적인 자연 형태에 의해 기능주의를 적용하려 한 것이었다. 대표적인 메타볼리즘의 개념으로 디자인된 도시계획은 겐조 단계의 '동경계획(1960)'이었고, 건축물은 도심지의 세컨드 하우스와 호텔기능을 갖춘 쿠로카와의 '나카진 캡슐타워빌딩(1972)'이었다.

1970년대 중반 이후 일본 건축은 과거에 무시했던 전통, 문화, 역사적 유산에 의존한 건축 그 자체에 내재된 표현성, 상징성, 의미성에 관한 가능성의 연구를 시작함으로써, 내부로 눈을 돌리기 시작했고, 탈모더니즘을 위한 방법이 시도되었다.<sup>4)</sup>

1980년대는 평론가 미야케 리이치가 정의했던 것처럼 감성의 시대였다고 할 수 있으며, 논리보다는 감각이 앞서고 기능보다는 형태가 앞서는 건축은 속성상 도시의 질서보다는 감각적인 형태를 우선하는 입장에 서게 되었다.<sup>5)</sup>

1990년대는 해체주의 등의 유행적인 흐름과 산업기술에 연관된 하이테크적 형태와 소재가 깊은 영향을 주었으며, 기술지향적인 건축이 두각을 나타내면서 부분적으로 형태와 상세, 의장 등에서 전통의 표피적인 활용이 부각되었고, 과도한 형태적 유희에 편도 된 절충적인 성향도 두드러졌다.<sup>6)</sup>

## 3. 아라타 이소자키의 디자인 배경

### 3.1. 디자인 경향

아라타 이소자키는 1931년 일본 큐슈 오이타시에서 태어났다. 1954년 동경대학교 건축학과를 졸업한 뒤 바로 겐조 단계의 사무실로 들어가서 실무를 쌓았다. 1963년 동경에 아라타 이소자키 아틀리에를 설립하고, 이후로 지금까지 Arata Isozaki & Associates로 동경, 뉴욕, 파리, 베를린, 바르셀로나에 사무실을 두고 세계 곳곳에 수많은 작품들을 진행하여 왔다. 그리고 동경대, 하버드대를 비롯한 세계 유수의 대학에서 강의도 병행하고 있다.<sup>7)</sup>

아라타 이소자키의 초기 작품들은 모더니즘적이며, 초기의

1)윤광진, 일본현대건축의 양식분류에 관한 연구, 연세대 석사논문, 1985, pp.14-15

2)조영부, 일본근대건축의 발전, 공간, 1980, p.37

3)김선영, 일본 현대 건축의 전통적 요소에 관한 연구, 한국실내디자인학회 논문집 27호, 2001, p.44

4)이일형, 앞의 논문, pp.70-71

5)김기수, 일본의 현대건축-모더니즘 건축에서 탈모더니즘 건축으로, 이석미디어, 2000, p.164

6)이일형, 앞의 논문, p.75

7)Arata Isozaki architecture 1960-1990, Rizzoli international publications, Inc., 1991, p.15

일본 내의 작품들은 겐조 단계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 1960년대 작품인 오이타 시립 도서관이나 공중도시 계획안에서 모더니즘의 특징들을 찾을 수 있다. 그리고, 1980년대 작품인 츠크바 센터와 1990년대 작품인 군마 현대미술관에서는 포스트모더니즘의 진수를 볼 수 있다. 츠크바 센터는 르 꼬르뷔지에의 모더니즘과 역사주의를 해체하여 기워 맞춘 뒤 허구의 장소를 구성한 것으로서, 인공 시스템을 사용한 것이었다. 인공은 주체가 사라져 없고, 모든 시각적인 요소가 현재 역사적, 공간적, 시간적 지도 속에 정보로서 분포되며, 일종의 텍스트가 되는 것으로서 포스트모던 건축의 큰 관심을 일으키게 되었다.<sup>8)</sup>

그의 세계 시민적인 건축 사고는 이렇게 모더니즘과 포스트모더니즘을 넘나들면서 형성되었으며, 그의 작품에서는 항상 일본의 전통적인 특징을 느낄 수 있다. 효고시의 과학, 기술 센터와 무사시, 큐료의 클럽하우스, 그리고 군마 현대미술관에서는 이러한 그의 전통에 관한 현대적 해석을 명확히 볼 수 있다.<sup>9)</sup>

아라타 이소자키는 1981년 LA 현대 미술관의 설계경에서 당선됨으로써 그의 이름을 국제적으로 알리게 되었다. 그 이후로 그는 수많은 국제 설계경기에 작품을 출품하고 당선되었다. 그는 자신을 일본 건축가가 아닌 세계시민으로 이야기하는데, 그가 세계를 무대로 일한다는 것에 대한 자긍심을 나타낸 것이다. 최근 발표한 밀레니엄 아파트는 신기술과 컴퓨터화 된 주거환경 등 21세기 미래형 주거로 전혀 손색이 없는 작품이다.<sup>10)</sup>

이러한 배경에서 아라타 이소자키의 작품은 1960년대부터 현재까지 10년을 단위로 변신을 시도하여 성공하였으며, 예측 불가능한 미래에 대해 상상력을 발휘하여 재미있고 신비로운 유희적인 공간으로 이끌어내는 그의 디자인 능력은 탁월하다고 하겠다.<sup>11)</sup>

## 3. 아라타 이소자키의 디자인에 영향을 미친 인물

### (1) 겐조 단계(Kenzo Tange)

일본에서 최초로 현대건축을 시작한 건축가이며, 동경대학 건축학과 교수로서 아라타 이소자키의 스승이었다. '히로시마 평화공원(1949)'에 의해 세계적인 명성을 얻게 되었으며, 이것은 일본의 현대건축이 세계무대에 등장하는 것과 동일한 의미를 가졌다. '가가와현청사(1958)'는 디자인의 기반으로서 가나다란 기동분할의 미학에 의해 일본 국내에서 전통논쟁을 일으키며 전통적 표현의 창조적 계승이라는 단계의 스타일을 구축시킨 작품이었다. 이후 도쿄올림픽을 계기로 '요요기 국립경기장

(1964)'에 의해 다시 한 번 그의 존재를 세계에 어필하였으며 금세기 최후의 포스트모던으로 불리우는 '도쿄도청사(1991)'에 까지 이르렀다. 아라타 이소자키는 겐조 단계의 연구실에서 수년간 작품 활동을 함께 하면서 일본 현대건축의 특성과 철학을 고민하고 배웠으며, 그의 작품 활동에 많은 영향을 받게 되었다.

### (2) 르 꼬르뷔지에(Le Corbusier)

스위스 태생의 프랑스 건축가로서, 그의 실내공간의 특성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째, 기하학적 형태의 추구로써, 무질서한 자연 속에서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어떤 원칙, 규범, 기준, 모듈 등을 적용한 새로운 실내 환경을 형성하는 것이었다. 그리하여 구, 원추, 입방체, 장방형, 직교각 등 순수 기하학에 기반을 둔 다양한 형태로 다이나믹한 실내공간을 형성하였다. 둘째, 인간의 척도와 규격화 개념 적용으로써, '주택은 살기 위한 기계'라는 그의 말처럼 인간 신체의 다양한 욕구를 만족시키는 기능적인 주택을 추구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으며, 그 가운데 일정한 법칙과 규칙이 정립되었다. 셋째, 장식 개념의 적용으로써, 실내에서 가구, 회화, 색 등을 장식적 요소로 사용하였다. 또한 빛에 의해 형태와 색채의 성격이 달라지는 점을 장식적으로 이용하였다. 넓은 창을 통해 들어오는 광선에 의해 변화되는 색상의 효과를 교묘하게 실내에 적용하여, 공간 전체가 흰색으로 된 쾌적적이고 단조로운 이미지에서 탈피하도록 하였다.<sup>12)</sup>

이러한 그의 철학은 전 세계 많은 건축가들과 디자이너들에게 깊은 영향을 미쳤고 아라타 이소자키에게도 큰 영향을 끼쳤다. 르 꼬르뷔지에의 '현대적이려면 역사를 이해할 필요가 있고, 이를 이해한 사람은 어떻게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연속성을 발견할 수 있을지 깨달을 것이다.'<sup>13)</sup>란 말처럼, 아라타 이소자키는 자신의 작품에서 일본의 전통적인 특성을 끊임없이 응용하고 변화시켰다. 또한 구, 원추, 입방체, 장방형 등 기하학적 형태를 이용하여 공간을 구성하고 빛을 실내에 장식적 요소로 사용한 점 등도 르 꼬르뷔지에의 영향이라고 할 수 있다.

## 4. 아라타 이소자키의 디자인 특성

### 4.1. 전통적 특성

일본의 전통 건축에서 공간은 하나의 물체로 떨어진 것이 아닌 문화, 전통, 풍속과 관련된 것이다. 일본의 전통적 공간 개념은 자연을 끌어넣고 그것의 일부에 동화되는 것에 의하여 성립된다. 자연을 사랑하는 일본인들의 미의식이 전통건축 공간에 표현된 것으로는 이중성, 연속성, 융통성 등이 있는데, 이와 같은 특징은 일본의 현대 건축에서 주로 표현되고 있다. 일

8) Arata Isozaki, GA Document extra 05, 1996, p.21

9) [http://www.c-channel.com/c00005/index\\_en.html](http://www.c-channel.com/c00005/index_en.html)

10) <http://www.archinude.com/archi-office/isozaki/iso.htm>

11) 손태진, 아라타 이소자키 작품 기행

12) 전영미, 20세기 실내디자인의 조류, 기문당, 2001, p.6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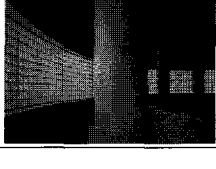


13) 이견섭, 20세기 건축의 모험, 마인드 미디어, 2005, p.136

본의 전통 건축에서 미완성의 미는 자연의 성장과 변화에 기초를 둔 미이며, 일본 건축의 전통 표현에서 특징적인 것 중의 하나는 일본 목조건축의 상징성에 집착하여 그것의 디테일이나 표현을 철근콘크리트나 철골로 표현하는 사례가 많다는 점이다. 겐조 단계의 작품이 이러한 시도의 초기 사례였으며,<sup>14)</sup> 아라타 이소자키도 자신의 작품에 철근콘크리트를 많이 사용하였다.

또한 일본 건축의 전통적 특징은 건물의 공간 배치와 시각적인 면을 고려한 건축 디테일에서 나타난다. 선과 형태의 반복에서 오는 조화로움과 정적인 건축미는 건물의 내부와 외부에 동시에 적용되어지며 건물은 개방형의 구조를 취하고, 건축 요소의 반복에서 오는 다양한 패턴 효과를 사용한 디테일이 특징적이다. 이는 다다미 바닥재의 정확한 비례와 짜임새의 모양, 지붕에 반복 사용된 타일의 격자무늬, 수평선과 수직선을 이용한 목재 짜집기 구조의 문틀과 울타리 등이 대표적 예이다. 마감재는 최대한 재료의 특성을 살릴 수 있는 형태로 표현되어지며 시각적인 반복에서 오는 패턴의 효과를 보인다. 사용되어진 자연 소재들은 환경 심리에 적용하는 일본 전통 건축의 또 하나의 특징이라 할 수 있다. 목재의 사용은 일본 전통 건축의 재료와 구조의 관계를 시사하는 경우를 볼 수 있다. 또한 구조적 측면에서는 자연과 융화된 수평적이고 병렬 개방형 구조를 가지고 있다. 처마선이 수평선을 절대적으로 강조하고, 그에 대응하려는 강한 수직선은 상대적으로 약화되어 나타난다. 간소화되어진 의장의 표현과 마감 재료, 구조, 비례를 가지고 표현된 일본 건축의 미학은 근대 건축의 이념과 일치한다.<sup>15)</sup>

아라타 이소자키는 이러한 일본의 전통성을 그의 작품에서 현대적으로 응용하여 사용하고 있다. 특히 <표 1>에서 보이는 미토 타워와 오이타 컨벤션 센터는 일본 현대 건축의 전통성에 대한 추상적인 해석과 범례가 드러나고 있는 전통성의 개념 확장의 사례로 볼 수 있다. 모든 건물은 수직 형태의 미토 타워와는 대조적으로 수평적이고 기하학적인 직육면체 형태를 취하고 있으며 시각적으로 일본 전통 건축의 특성인 수평선과 수직선이 적용되어져 있다. 또한 카미오카 타운 홀, 라 꼬르니야 인간과학관에서는 다양한 빛의 활용을 통한 내부와 외부의 깊은 교감을 통해 실내와 실외가 하나가 되는 느낌을 주는 일본의 전통적 특징을 느낄 수 있으며, 나기 현대 미술관에서는 철근콘크리트를 사용하고, 물이라는 자연적 요소를 실내에 끌어들이 외부와 내부를 연결시키는 일본 전통적 특성을 살펴 볼 수 있다.

<표 1> 전통적 특성

작품명	이미지	디자인 특성
미토 타워, 일본, 199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일본 전통성의 개념 확장의 사례로서, 모든 건물은 수직 형태의 미토 타워와는 대조적으로 수평적이고 기하학적인 직육면체 형태를 취하고 있음.</li> </ul>
오이타 컨벤션 센터, 일본, 1994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일본 전통성의 개념 확장의 또 다른 사례.</li> <li>가로로 넓게 펼쳐진 건물들은 수평선의 요소를, 높이 솟은 탑은 수직선의 요소를 보여줌.</li> </ul>
카미오카 타운 홀, 일본, 1978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일본 전통 건축 요소 중 수직선과 수평선을 사용한 기둥과 창틀, 창살은 일본 전통성을 연상시킴.</li> <li>선과 형태의 반복에서 오는 조화로움과 정적인 건축미 표현.</li> </ul>
라 꼬르니야 인간과학관, 스페인, 1995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자연과 융화된 수평적이고 병렬 개방형 구조의 전면창을 통해 많은 양의 빛을 실내로 끌어들이고, 내부와 외부의 깊은 교감을 통해 실내와 실외가 하나가 되는 느낌을 줌.</li> <li>일본 전통의 창틀 형태인 수직선과 수평선을 보여줌.</li> </ul>
나기 현대미술관, 일본, 1994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일본 목조건축의 상징성에 집착하여 디테일이나 디자인 표현을 철근콘크리트나 철골로 표현함.</li> <li>건물과 건물 사이에 수공간을 설치하여 자연을 실내에 끌어들이는 일본의 전통적 요소를 표현함.</li> </ul>

## 4.2. 절충적 특성

일본의 토교와 교토처럼, 현대성과 전통성의 교차로서 일본 디자인 전반에 공존하는 대조가 있다. 친근함이 있는가 하면 강한 충동이 표현되고, 전통과 급진이 공존하며, 미학적 추구와 호사스런 욕구가 병행한다. 일본의 디자인은 동·서양과 과거·현재의 선명한 절충을 기도하고 있으며, 재화와 독자적인 미적 체험을 유도한다. 아라타 이소자키, 다다오 안도 등과 같은 세계적인 일본 건축가들로 인해 과거 서양으로부터의 중압감에서 벗어난 일본은, 외부 영역에 있는 요소들의 구속 개념에서 탈피하여 모든 디자인 영역에서 다원적·절충적 개념으로 접근하고 있다.<sup>16)</sup>

이러한 배경으로 아라타 이소자키의 작품에는 현대성과 전통성의 교차, 친근함과 강한 충동의 공존, 과거와 현재의 절충동이 나타나고 있다. 아라타 이소자키는 자신의 디자인 철학을 각 지역의 특성과 절충시켜 공간을 구성하고, 재료를 선정하였다. <표 2>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로스앤젤레스 현대미술관은 남 캘리포니아라는 기후조건에서 사암의 색상을 이용하여

14)이일형, 앞의 논문, p.74

15)김선영, 앞의 논문, p.49

16)이일형, 앞의 논문, p.72

의도적으로 공간을 다섯 가지 요소로 분해하여 구성하였고, 디즈니 빌딩은 건물의 이미지에 맞게, 시간이라는 주제를 설정하여 해시계를 설치하고 색상과 공간을 재미있게 구성하였다. 라꼬르니야 인간과학관은 스페인의 절벽 위에 세워진 건물로서, 주변 환경과 하나가 되는 공간을 형성하였으며, 이러한 특성은 성 조르디 스포츠 홀과 일본 문화 기술 센터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예들은 건축을 하나의 문체로 구성하겠다는 그의 목표 하에서 디자인된 것으로, 절충적 방식을 이용하여 건축 자체에 대한 대화를 뛰어넘어 건축의 대사회적인 대화방식과 도시에 대해 대화를 건넨다는 면을 의식적으로 강조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sup>17)</sup>

<표 2> 절충적 특성

작품명	이미지	디자인 특성
로스앤젤레스 현대미술관, 미국, 1986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미국 로스앤젤레스라는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사암을 마감재로 사용함.</li> <li>이소자키의 메타볼리즘적 특성과 일본 전통적 특성을 지역적 조건과 절충시킴.</li> </ul>
디즈니 빌딩, 미국, 199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미국 플로리다에 있는 디즈니 빌딩이라는 특성을 고려하여 건물의 배치와 공간 구성, 실내디자인을 메타볼리즘과 절충시켜 재미있게 구성함.</li> <li>실내와 실외의 색상도 디즈니라는 이미지에 맞게 화려한 색상을 사용함.</li> </ul>
라꼬르니야 인간과학관 스페인, 1995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스페인의 북서쪽, 대서양을 마주보고 있는 절벽 위에 세워졌으며, 주위의 환경들과 연결시키고자 앞면은 비늘 모양을, 뒷면은 돌의 투박한 형상으로 디자인함.</li> <li>그 지역에서 나는 돌을 마감재로 사용함.</li> </ul>
성 조르디 스포츠 홀, 바르셀로나, 199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바로셀로나의 지형과 잘 어울리는 곡선 지붕을 사용하고, 일본 전통적인 수직선, 수평선의 요소와 절충시켜 디자인함.</li> </ul>
일본 문화 기술 센터, 포오랜드, 1994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포오랜드 크라코프시의 비스워강 앞에 위치한 이 건물은 강의 흐름을 본 딴 지붕의 아름다운 곡선이 특징적임.</li> <li>지붕과 벽 마감과 실내에서 일본 전통의 수직적 요소를 찾아볼 수 있음.</li> </ul>

(개념, 대상물)에서 다른 제재로 변형하려고 시도할 때 혹은 한 가지 제재를 어떤 특별한 것으로 보려고 시도할 때 등의 형태로 나타난다.<sup>18)</sup> 이와 같은 은유적 표현은 구체적으로 드러나지 않는 형태적 개념을 시각적으로 표현 가능하게 함과 동시에 두 가지 이상의 복잡한 디자인 개념을 결부시켜 새로운 디자인을 창조해 내는 역할을 한다.<sup>19)</sup>

은유적 표현은 직접적인 형태의 도입을 사용한 형태적 은유와 감성적 은유로 나눌 수 있다. 형태적 은유는 <표 3>의 키타큐슈 도서관과 후지미 컨트리 클럽, 카미오카 타운 홀에서 찾아볼 수 있다. 외관은 물음표나 모자 모양의 건축 형태이지만, 사용자는 내부에서 즉각적으로 공간적 조형화를 인식하지 못한다. 결국 건축의 사용자가 건축물을 단계별로 발견하고 즐길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런 공간의 상징화는 일종의 숨은 그림 찾기와도 비교될 수 있다. 이러한 은유적 특성은 포스트

<표 3> 은유적 특성

작품명	이미지	디자인 특성
키타큐슈 도서관, 일본, 1974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형태적 은유의 예</li> <li>건물의 형태를 긴 파이프를 연결시킨 재미있는 모양으로 배치하였지만, 사람들은 그 공간 안에서는 건물의 형태에 대해 느끼지 못하고 멀리서 봤을 때만 건물의 형태를 느낄 수 있음.</li> </ul>
후지미 컨트리 클럽, 일본, 1975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형태적 은유의 예</li> <li>건물의 배치를 물음표로 하였으며, 사람들이 입구에서는 느끼지 못하지만, 전체 공간을 체험한 뒤에야 그 구성의 즐거움을 느낄 수 있음.</li> </ul>
카미오카 타운 홀, 일본, 1978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형태적 은유의 예</li> <li>모자 모양을 은유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건물 외관. 실내에서는 느끼지 못하지만, 외부에서 보면 그 형태의 즐거움을 느낄 수 있음.</li> </ul>
나기 현대 미술관, 일본, 1994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감성적 은유의 예</li> <li>실내에서 생태요소인 물, 빛, 바람 등의 간접적인 표현을 마음 속에 떠오르게 하여 은유적인 감성으로 전이함.</li> </ul>
키타큐슈 미술관, 일본, 1974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감성적 은유의 예</li> <li>큰 창을 통해 외부의 자연과 빛을 실내로 끌어들이고, 실내에 수공간을 만들어 빛과 물을 이용한 감성적 은유를 표현함</li> </ul>

### 4.3. 은유적 특성

은유(metaphor)는 원래 관념은 숨기고 보조 관념만 드러내어, 표현하려는 대상을 설명하거나 그 특질을 묘사하는 표현방법이다. 건축디자인에서의 은유는 지시 개념들을 한 가지 제재

18) 최윤희, 건축디자인 생성을 위한 은유 모델 개발 연구, 원광대, 석론, 2001, p.30  
 19) 전경희·남경숙, 현대 실내공간에서의 전통의장요소 활용에 관한 연구, 한국실내디자인학회 학술발표대회 논문집 8호, 2005, p.117

17) Arata Isozaki, GA Document extra 05, 1996, p.23

모던 건축의 다층적이고 다의적인 특징이라고 할 수 있으며, 여기서 아라타 이소자키의 포스트모던적 건축 특성을 살펴 볼 수 있다. 감성적 은유는 생태요소인 물, 빛, 나무, 흙, 바람 등의 간접적인 표현이 마음속에 떠오르는 이미지의 바탕이 되어 전이되는 것이다. <표 3>의 나기 현대 미술관과 키타큐슈 미술관처럼 잔잔히 흐르는 인공적인 연못, 가지런히 정돈된 소우주적인 정원, 빛에 의한 영적 연출 등은 인간의 이성적 측면보다는 비합리적 정서, 감성, 영감 등을 중시하는 생태적 감성공간으로 완성되고, 이러한 생태요소의 간접적인 표현은 종교적 혹은 공적이나 사적으로 판조적인 공간연출시 기본적인 감성적 은유의 표현이 된다.<sup>20)</sup>

#### 4.4. 메타볼리즘적 특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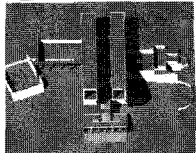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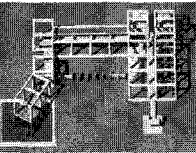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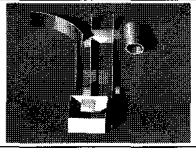
C.I.A.M이 1956년 제10차 회의를 마지막으로 1959년에 해산되고 개최되었던 국제회의가 바로 도쿄에서 1960년에 개최된 세계 디자인회의였다. 일본이 세계 디자인회의를 개최하였다는 사실보다 더 큰 건축적 의미를 지닌 사건이 이 회의를 계기로 등장한 메타볼리즘 그룹의 대두였다. 오사카 만국박람회(1970)는 메타볼리스트들의 이론의 실천장이라고 할 수 있으며, 회장 계획의 겐조 단계, 축제광장의 아라타 이소자키, 엑스포 타워의 기요노리 기쿠다케, 다카라 파빌리온의 기쇼 구로카와 등 메타볼리즘에 참여한 건축가들의 경연장이기도 하였다. 동시에 메타볼리즘에서 아키텍처 그리고 퐁피두센터로 이어지는 기술 표현주의적 건축 아이디어의 흐름을 감지할 수 있는 건축적 축제였다. 이후 포스트 메타볼리즘이 대두되었지만 완전한 방법론을 갖춘 것은 아니었다. 기술을 멀리 하면서도 기술을 사용하려는 욕망, 현실사회에의 접근, 일본문화의 전통적인 맥락 안에 있는 형태의식에 대한 중요성의 인식이라는 공감대를 가지고 있었으며, 사회를 변형하거나 개혁하려고 집착하기보다는 그 사회의 다양성, 복합성을 수용하고, 주어진 도시의 현재 상황에 대한 수정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려고 하였다.<sup>21)</sup>

메타볼리즘은 뜻 그대로 도시를 한 생태계와 같이 생각하고 그 신진대사의 개념을 도시성장에 적용시키자는 생각이며, 유기체적 생명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다. 사회의 가속화된 변화를 해결하기 위하여 건축은 사회의 표현, 진화의 개념을 포함하여야 하고, 도시는 변화, 조정을 허용하는 열린 체계로서 이해되어야 함을 주장하였다. 또한 환상 도로계획, 초고층 건축계획과 같은 미래 사회의 모습을 제안하였다. 레이너 뱌헨은 '미래의 도시를 현재의 구조로 재현해 보려는 것은 실수만 유발하였고, 변화와 조정가능성에 근거한 건축이, 역설적으로 기념비적 형

태를 제공하였다'라고 그들의 노력을 평가하고 있다. 하지만, 도시와 건축에 시간, 진화, 순환, 변화의 의미를 가져온 것은 무시할 수 없다. 겐조 단계의 도쿄 계획과 아라타 이소자키의 공중의 도시는 모두 도시의 하부구조를 이루는 거대구조에 주거, 사무소 등의 기능을 담는 공간 혹은 작은 건물들이 자유로이 결합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또한, 이소자키가 진정으로 원한 것이 '나무가 아니라 숲'이었다고 하듯, 이들은 이 거대구조가 건물로 그치지 않고 계속해서 증식함으로써 도시 자체가 되는 것을 꿈꾸었다.<sup>22)</sup>

이러한 배경에서 아라타 이소자키는 메타볼리즘의 대가라고 불릴 만큼 여러 작품에서 '성장하는 건축'이라는 표현 특성을 찾아 볼 수 있다. 그는 시간을 초월한 변화, 풍화, 폐허, 소멸, 이로부터의 진전, 축소 등 각가지 내용들의 발생에 개입하려고 하였다. <표 4>의 키타큐슈 미술관, 츠쿠바 센터, 군마 현대미술관, 나기 현대 미술관 등의 평면 구성을 보면, 중앙에 광장이나 주공간을 배치하고 주위에 보조공간과 서비스공간을 구성하여, 하나의 건물이 또 하나의 다른 건물을 만들어가고, 하나의 생명체가 또 다른 생명체를 다시 잉태해가는 메타볼리즘적 특성을 볼 수 있다.

<표 4> 메타볼리즘적 특성

작품명	이미지	디자인 특성
키타큐슈 미술관 일본, 1974		· 건물의 주공간을 중심에 배치하고, 보조공간과 서비스공간을 그 주위에 배치하여, 메타볼리즘적 특성을 보여줌.
츠쿠바 센터 일본, 1983		· 중앙 광장을 중심으로 주공간을 배치하고, 주위에 또 하나의 건물, 그 주위에 또 다른 건물을 배치하여 건물이 계속 성장하고 있는 느낌을 줌.
군마 현대미술관 일본, 1994		· 주공간을 오른쪽에 길게 배치하고, 그 주위에 연속해서 보조공간, 서비스공간으로 뻗어 나가도록 배치하여 건물이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줌.
나기 현대 미술관 일본, 1994		· 주공간과 통로를 통한 또 다른 공간, 또 다른 형태의 공간을 배치시켜 건물의 다양한 생성과 성장을 보여줌.

#### 4.5. 비례적 특성

아라타 이소자키는 르 꼬르뷔지에의 모듈과 일본의 전통적인 비례를 조화시킬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늘 고민하였으며, 공간 구성에 있어서 수직선과 수평선의 비율을 연구하였다. 그 결과 사각형의 비율을 일대일로 했을 때 가장 좋은 비례라고

22) 장동원, 현대 건축에 나타나는 거대구조물 개념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론, 2005

20) 백승경 · 김주연 · 이승훈, 생태요소를 적용한 감성 공간 유형에 관한 연구, 한국실내디자인학회 논문집 49호, 20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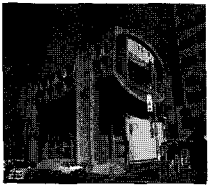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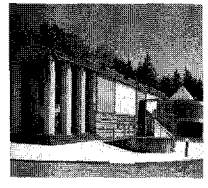
21) 권경희 · 김문덕, 일본 현대 실내공간에서 전통개념의 표현경향에 관한 연구, 한국실내디자인학회 학술발표대회 논문집 3호, 2001, p.8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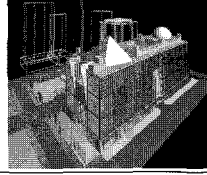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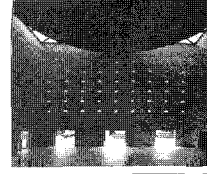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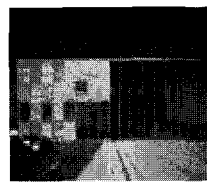
생각했으며, 정사각형, 정육면체, 삼각형, 피라미드, 반원, 원기둥 등을 공간 구성에 활용하였고 이들의 규칙적인 비례를 적극적으로 이용하였다.

아라타 이소자키처럼 작품에서 비례적 특성을 볼 수 있는 작가로는 르 꼬르뷔지에, 루이스 칸, 한스 셔로운 등이 있다. 르 꼬르뷔지에는 실내공간에서 기하학적 형태를 추구하였으며, 구, 원추, 입방체, 장방형, 직교각 등 순수 기하학에 기반을 둔 다양한 형태로 다이나믹한 실내공간을 형성하였다. 루이스 칸은 평면디자인을 프로그램의 해석에 대한 단순한 기하학적 형태로 표현하였다. 구조단위는 격자모듈과 대응되어 건물전체를 확장하기도 하고 한편으로 구조적 요소와 단일공간이 건물전체의 공간조직을 구성하기도 하였다.<sup>23)</sup> 또한, 한스 셔로운은 기본적인 모듈을 채용해서 설계하되 각 건축물이 위치한 지역의 지리적, 역사적 특성에 맞춰 건물과 대지가 유기적으로 상호 반응할 수 있는 디자인을 항상 염두에 두었다.<sup>24)</sup> 이 세 작가의 디자인 특성은 아라타 이소자키의 비례적 특성과 비슷한 부분이 많으며, 같은 비례적 특성을 가지고도 작가마다 공간에 따라 다르게 표현되었다.

아라타 이소자키는 이러한 특징들을 가지고 <표 5>의 오이타 메디칼 홀, 오카노야마 그래픽 미술관, 뉴 도쿄 시청, 도쿄노쿠니 도서관, 오카야마 경찰서에서 보여 지는 공간들처럼 정사각형의 모듈을 반복적으로는 구성하여 건축공간을 만들고, 재료와 구조에 의한 기하학적 형상을 반복과 대칭시켜 전체적인 통합이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오브제와 격자 형식의 반복, 증폭, 투영, 포석 등은 아라타 이소자키에게 더 이상 고전적 의미를 지닌 재현적 요소가 아니며 새로운 재료와 구조에 의한 추상적인 단위가 되었다.

<표 5> 비례적 특성

작품명	이미지	디자인 특성
오이타 메디칼 홀, 일본, 1969		· 정사각형을 모듈로 사용하여 건물의 외관을 구성하고, 수직선과 수평선, 원의 곡선을 다양하게 응용함.
오카노야마 그래픽 미술관, 일본, 1984		· 건물 외관에 정사각형의 모듈을 사용하고, 수직선, 삼각형, 곡선 등의 기하학적 요소들을 사용함.

뉴 도쿄 시청, 일본, 1986		· 건물 외관 정사각형의 모듈을 기본으로 구성하고, 삼각형, 원을 지붕 위에 배치함.
도쿄노쿠니 도서관, 일본, 1995		· 실내의 창문은 정사각형을, 출입구는 직사각형을 사용하여 디자인함. · 천장에는 정사각형과 원을 사용하여 실내에 다양한 형태적 요소를 느낄 수 있도록 함.
오카야마 경찰서, 일본, 2000		· 건물 구성과 입면에서 정사각형 모듈을 볼 수 있으며, 창문 형태, 색상 등에서 정사각형의 다양한 활용을 볼 수 있음.

## 5. 결론

앞장의 분석과 종합을 통해, 아라타 이소자키의 건축의 원칙과 어휘, 건축에 대한 작가의 자세, 타고난 창의적 안목 등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의 작품에서는 일본 건축의 전통적 요소가 새로운 질서와 새로운 형태 언어로 다시 태어나게 되었다.

아라타 이소자키는 하나의 이즘이나 양식으로 정의할 수 있는 작가가 아니라, 각 시대와 각각의 양식을 아우르는, 다양성과 탈장르화라는 특성을 가진 작가라고 할 수 있다. 그는 아방가르드적 사고방식을 가지고, 각 시대별 양식과 흐름을 복합적으로, 절충적으로 건축에 표현하였다.

그의 작품을 분석해본 결과 그의 공간에 나타난 세부적인 디자인 특성은 전통적, 절충적, 은유적, 메타볼리즘적, 비례적 특성 등으로 요약할 수 있었다.

일본의 전통성을 자연과 빛, 선적인 요소를 사용하여 표현하는 전통적 특성, 자신의 디자인 철학과 지역성, 현대, 과거 등을 절충하는 절충적 특성, 형태적 은유와 감성적 은유로 나타나는 은유적 특성, 건축을 살아있는 생명체로 여기는 메타볼리즘적 특성, 공간 구성과 형태에서 비례를 중시하는 비례적 특성 등이었다. 이러한 다섯 가지 특성은 아라타 이소자키의 공간을 해석하는 철학 속에 녹아져 다양하게 표현되고 있었다.

그가 작품 활동을 시작한 1960년대는 일본에서도 현대 건축이 생성되던 시기였으며, 이후 일본 현대 건축의 성장과 함께 아라타 이소자키의 작품 활동도 활발히 진행되었다. 일본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대상으로 작품 활동을 진행하였으며, 일본인 이면서 세계시민이라는 자세를 가지고, 일본의 전통적 특성을 각 지역마다 은유적으로 표현하고, 지역적 특성과 절충시킨 그만의 독특한 작품 형식을 나타내고 있었다.

그의 작품은 10년을 주기로 특성의 변화를 감지할 수 있었

23)김정권, 루이스 칸 건축의 보자르적 해석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5

24)황보봉, 한스 셔로운의 주택설계에 나타난 근대 기능주의, 한국실내디자인학회 논문집 51호, 2005

으며, 처음 작품 활동을 시작했던 1960년대에는 비례적 특성, 1970년대에는 은유적 특성, 1980년대와 1990년대에는 메타볼리즘적 특성, 1990년대 이후에는 절충적 특성과 전통적 특성이 좀 더 강조되어 나타났다고 할 수 있다. 물론 이러한 특성들이 한 시대에 한 작품에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연대에서 여러 작품에서 골고루 표현되고 있었다.

따라서 앞으로는 본 연구에서 파악된 아라타 이소자키의 디자인 특성을 바탕으로, 그의 작품 활동을 시기별로 분석하고 각 시기별 사례에 적용된 디자인 특성들을 보다 세부적으로 파악하고 연구해 볼 필요성이 있겠다.

위와 같은 결론으로 아라타 이소자키의 건축 공간에 나타난 디자인 특성 등을 살펴보았으며, 앞으로도 아라타 이소자키의 건축 철학 및 개념은 지속적으로 연구되어야 할 것이라 믿는다.

### 참고문헌

1. 권경희·김문덕, 일본 현대 실내공간에서 전통개념의 표현경향에 관한 연구, 한국실내디자인학회 학술발표대회 논문집 3호, 2001
2. 김기수, 일본의 현대건축-모더니즘 건축에서 탈모더니즘 건축으로, 이석미디어, 2000
3. 김선영, 일본 현대 건축의 전통적 요소에 관한 연구, 한국실내디자인학회 논문집 27호, 2001
4. 김은주, 우치다 시게루의 디자인 개념과 실내공간 표현 특성에 관한 연구, 한국실내디자인학회 논문집 45호, 2004
5. 김은지·이정옥, 포스트모던 디자인과 중세 미학의 관계 연구, 한국실내디자인학회 논문집 39호, 2003
6. 김정곤, 루이스 칸 건축의 보자르적 해석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론, 2005
7. 백승경·김주연·이승훈, 생태요소를 적용한 감성 공간 유형에 관한 연구, 한국실내디자인학회 논문집 49호, 2005
8. 손태진, 아라타 이소자키 작품 기행
9. 윤광진, 일본현대건축의 양식분류에 관한 연구, 연세대 석사논문, 1985
10. 이일형, 일본현대건축의 지역적 특성에 관한 연구, 한국실내디자인학회 논문집 22호, 2000
11. 장동원, 현대 건축에 나타나는 거대구조물 개념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론, 2005
12. 권경희·남경숙, 현대 실내공간에서의 전통의장요소 활용에 관한 연구, 한국실내디자인학회 학술발표대회 논문집 8호, 2005
13. 정동현, 현대건축의 구축성 구현과정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 학술발표논문집 24권 1호, 2004
14. 최윤희, 건축디자인 생성을 위한 은유 모델 개발 연구, 원광대, 석론, 2001
15. 최진용·김정곤, 폴 크래의 작품에 구현된 건축교육과 건축이론, 대한건축학회 논문집(계획계) v.21 n.4, 2005
16. 최필성, 건축문화의 세계화와 식민화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19권 11호, 2003
17. 황보봉, 한스 셔로운의 주택설계에 나타난 근대 기능주의, 한국실내디자인학회 논문집 51호, 2005
18. 전영미, 20세기 실내디자인의 조류, 기문당, 2001
19. 조영부, 일본근대건축의 발전, 공간, 1980
20. Arata Isozaki architecture 1960-1990, Rizzoli international publications, Inc., 1991
21. Arata Isozaki, GA Document extra 05, 1996
22. JA(Japan Architect) Programming, 1995-3
23. The Illustrated Encyclopedia of Architects and Architecture, Dennis Sharp, Quatro Publishing, 1991

24. <http://www.archinude.com/archi-office/isozaki>
25. <http://www.archinform.net>
26. <http://www.arch.oita-u.ac.jp/a-kei/urban/archimap/isozaki.htm>
27. <http://architecture.about.com/library/bld-isozaki.htm>
28. [http://www.c-channel.com/c00005/index\\_en.html](http://www.c-channel.com/c00005/index_en.html)
29. [http://www.greatbuildings.com/buildings/Gunma\\_Museum\\_of\\_Fine\\_Arts.html](http://www.greatbuildings.com/buildings/Gunma_Museum_of_Fine_Arts.html)
30. <http://www.idahn.com/archbon/architec/isozakia/architop.htm> 1~2005. 5

<접수 : 2005. 10. 31>